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길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개정 규칙 맞춰 지침 마련
내포 첫 사업 아파트에 적용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
공급' 길이 열렸다.

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
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
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저출산 위기 대
응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충
남형 도시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공동주택 특
별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이 우선 필요
하다고 보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혼부부·다자
녀 등 특별공급 비율 확대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도는 출산 가능 가구와 지
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공동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
한을 위임받거나, 더 확대돼야 한다
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24항에
'저출산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에
고하며, 시도지사 권한으로 기관 추
천을 포함한 특별공급 비율을 100%
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건축도시과 041-635-4666

도는 개정 규칙 시행에 맞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
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세부 지침
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다음 달 진행키로 한 입주자
모집은 개정 규칙 시행 및 지침 마련
이후로 연기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마련, 충남형 도시리브투
게더 아파트를 더 많은 신혼부부 등
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규칙 첫 적용 단지가 될 충남
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건설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쌍 임대료로 거
주하다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2세미
만 자녀, 생애최초 등이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m²·옛 34평)를 공
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한창
인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m²
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 285m²,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
주택 한계 극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
고 있다.

/건축도시과 041-635-4666



폭염 견디며 결실 맺은 벼 수확 8월 28일 오후 천수만 간척지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의 한 농에 끓바인이 들어가 조생종 벼를 수확하고 있다. 이 품종은 도열병에 강하고 쌀알이 맑으며 식미가 좋은 진옥벼로, 지난 5월초 식재했다. 올해 짙은 비와 폭염 속에서도 벼농사는 평년작 이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드론촬영/홍성군

AI가 알려주는 용어풀이

문) 충남도의 '리브투게더(Live Together)'에 대해 알려줘

답)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 8기 도정의 주택 정책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디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포신도시 외 천안 직산, 아산 탕정 등이 후보지역입니다. 또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산재되어 있는 주택을 모아 마을을 재생성하고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선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네이버 AI 검색 Cue:



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1억
대출기간 2년 11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
업 경영난 완화를 돋기 위해 특별경
영안정자금 50억 원을 대출 지원키로
하고, 오는 1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
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
금인 소상공인(비보증) 경영안정자금
(옛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
은 업체 가운데, 대출 약정 기간이

끌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대
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
년이 안 된 업체나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이
며,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
리의 2%p를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2245

글로컬대에 건양대 선정 5년간 국비 1000억 지원

충남도는 건양대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8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지난해 아쉬움이 커던
만큼 올해는 대책회의 등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왔다"며
"올해부터 5년간 사업이 추진되
는 만큼 신속하게 지산학연 협
의체를 구성해 글로컬대학 운영
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
아가 도내 전체 대학의 혁신을
유도해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사
는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킬 것"
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
는 라이즈(RISE)사업과도 연계
해 타 대학에 성과를 적극 확산
시키겠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
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 파트

학과 국방산업 중심 개편 지방대 경쟁력 지역혁신

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 동
반 성장을 이끌 대학을 집중 지
원·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지
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며, 교육
부는 지난해 10개, 올해 10개 대
학에 이어 내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양대는 논산 국방국가산단
구축계획과 연계해 모든 학과
와 교원을 국방산업 중심 체계
로 개편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케이(K)-국방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및 국방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을 도모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방산단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및 국방미래기술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 추가 지
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
조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8

지면안내

내년 국비 11조	3면
추석연휴 나들이 소개	7면
충남의 종가	8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추석 농사랑 선물세트	16면

도정 비전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편안하고 안전하게”…추석 종합대책 추진

경제·의료 등 5대 분야 14개 과제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120콜센터
농시랑 할인·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충남도는 오는 19일까지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대
책’을 추진한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
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
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충남
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경제 분야 대책으로는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을 통해 명절 성수품 배추·
무·사과·배 등 20개 품목의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폭염·호우 등으로 채소·과일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석 명절에 맞춰
‘농사랑’ 명절 맞이 할인 온라인 기획
전을 9일까지 운영하고 추석 맞이 ‘충
남 큰 장터’를 개최하는 등 직거래 장
터를 운영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
획이며, 지(G)마켓·신한울렛쇼핑 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한가위

행사도 진행해 도내 소상공인 우수제
품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수산물 구입액
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계획이며,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난
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등을 위한 중소기업 특
별경영 안정자금 융자 지원(업체당 1
억 원 이내 총 50억 원 규모)도 추진
한다.

재해·재난 분야에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 도내 주요 다
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하고
도로 일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추석 명절 대비 대중교통 증회 운행
비 롯해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
교통 안전 등 도민 생활 밀접 부문을
특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
이며, 13일부터 19일까지는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응급소방대, 상인회 등을 중
심으로 도내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
화하고 소방서별 기동 순찰을 하는 등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위문과 민간·지역 공동체를 중
심으로 한 집중 지원봉사 주간도 운
영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각종 소
외계층에 대한 명절 지원 대책을 추
진하며, 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노동
자 생활 안정 대책 점검, 건설공사 하

도급 등 체불 방지 지도·점검도 실시
할 계획이다.

응급 및 방역 분야는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도·시군에서 응급진료상
황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비상 진료
기관·약국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의
료기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24
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취
약시설 관리 강화, 코로나19 치료제 안
정 수급 등 집단환자 발생 및 특이사

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온
열질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20
개소를 지정해 응급실 및 일일 온열질
환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발생 신고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도내 우수 가공식품은?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9월 3일 농업기술원 교육
관 제2강의실에서 소비경향 예측을 위한 인공지
능(AI) 활용 마케팅 교육과 함께 우수 가공식품
경진대회 시상식을 병행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시상, 우수 가공식품 사례 발표, 수
상작 전시 및 시식,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라파(대표 손태경)의 ‘젓갈 품은 영
양찰밥·연잎밥’ 이, 우수상은 청생연분(대표 박
설연)의 ‘통 생딸기 잼’, 홍삼천하(대표 한병희)
의 ‘위드진 감성홍삼절편, 위드진 감성홍삼차’
가 받았다. 사진 좌측부터 라파 손태경 대표, 충남농업기술
김영 원장, 청생연분 박설연 대표, 홍삼천하 한병희 대표.

/도 농업기술원 041-635-6183

충남산림자원연 이전 대상지 청양군 선정

산림자원 연계 등 높은 평가
질 높은 산림 휴양 기회 제공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됐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8월 30일 이전
대상지 평가위원회를 열고, 연구소 유
치에 나선 공주·보령·금산·청양·태안
등 5개 시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을 이전 대
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그동안 최적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현장 실사 등을 진행했으

며, 이번 평가에서 청양군은 ▲산림자
원 확보 ▲도내 균형발전 기여 ▲산림
자원 연계 연구·활용 등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현 위
치로 이전해 임업 연구와 각종 산림
사업을 수행 중으로, 2012년 세종시 출
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다.

269ha 규모의 도 산림자원연구소 본
소에는 금강자연휴양림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나무
병원 등이 설치돼 있다.

도는 2022년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

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
지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이전 대상지 최종 선정에 따라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0월 기본
구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호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세
종시 편입 이후 서비스 수혜자·공급
주체·경제적 효과 및 불일치가 계속됐다”
며 “도내 이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고, 도민에게 더 질 높은 복합 산림 휴
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421

호우 피해 복구비 4403억 원 확보

내년 우기 전 공공시설 복구

충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
다고 밝혔다.

4403억원 중 3240억원은 국비로 지
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
원(10.8%)과 688억원(15.6%)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사유시설에 대한 재
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주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
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원, 소하천
813억원, 산사태 347억원, 도로 23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1626곳으로, 2
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
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 말까지 완
료하고, 50억원 미만 사업 150곳은 6
월 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
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
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전
과 4세대, 반과 33세대, 침수 1046세대)
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
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
억원 등 총 109억원을 8월 말까지 지
급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원
을 지원한다.

/자연재난과 041-635-3256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 긴급 대응

도-교육청, 학생 대상 캠페인
소규모 기업 예방 교육 확대

충남도는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확산으
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대응
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이
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중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유형, 구제 절차 등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하고, 도내 23
개 상담소와 협력해 학교를 직접 방
문해 피해 예방 교육과 학생 대상 캠
페인을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에게
는 공연을 통해 대처 방법을 교육한다.

성인 대상으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신종 범죄에 맞춘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50인 미만 소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성범
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만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돋기 위
한 노력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딥페이크 제작의 위
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긴급전화(☎041-1366)
또는 해뜰통합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041-547-5004)로 상담
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15개 시군
별 23개 상담소를 통해서도 전문가
심리 상담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3

함께 지켜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일상생활에서

- ❶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❷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❸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 가리기
- ❹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

코로나19 감염 시

- ❶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
- ❷ 불편한 만남 자제
- ❸ 발열,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❹ 회사 등도 구설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병가 등 제공

고위험군

- ❶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❷ 대규모 인원이 실내에서 모이는 행사 등을 참여 자제
- ❸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 방문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 ❶ 종사자·보호자·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
- ❷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
- ❸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국비 '11조 시대' 눈앞...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구축 탄력

내년 정부예산 10조 7798억 확보
올 최종 확보액보다 5668억 많아
"국회 심의 증액 반영 위해 총력"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및 도정 역점 사업 추진,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 올해 최종 확보한 정부예산보다 5668억 원 이상 더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8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10조 7798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2024년 정부예산안 9조 8243억 원보다 9555억 원(9.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10조 2130억 원에 비해서도 5668억 원(5.6%) 많은 규모다.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도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구축 사업 관련 정부예산을 대거 따냈다.

주요 신규 사업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전기자동차(EV) 핵심 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 구축 ▲2024년 글로컬 대학(건양대) 200억 원 등이다.

이 중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은 2032년까지 8년 동안 4840억 원을 투입해 화소·패널 제조,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국비 180억 원을 반영시켰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추진전략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구분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반영액
신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25~'32	4,840(3,484)	180
신규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25~'27	241(98)	10
신규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	'25~'27	243(100)	20
계속	2024년 글로컬 대학	'24~'28	4,160(1,000)	200
계속	고남-창기 도로건설	'22~'29	2,204(2,204)	207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추진전략 - 해양 관광·신산업 육성 및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

구분	사업명	기간	총사업비(국비)	반영액
신규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5~'26	208(41)	15
신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5~'27	600(420)	70
신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공모	'24~'31	30,274(1,094)	20
계속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16~'27	347(222)	20

량 519억 원 ▲고남-창기 도로 건설에 207억 원 등이 반영돼 도내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티비엔(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에는 82억 원을 확보해 계획대로 내년 6월 개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있으며, 도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국제행사 공인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서해안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신산업 육성, 농어업 미래 성장 지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사각지대 없는 의료복지 서비스, 균등한 보육 환경 조성 등 도민 안전 체계 구축과 복지 혜택 증진을 목표로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

주요 신규 확보 사업은 ▲태안원예치유박람회 개최 15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70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20억 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20억 원 등이다.

이 결과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50억 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2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3억 원 등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부 지원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한 사업이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은 올초 화재로 인해 점포들이 전소함에 따라 시장을 다시 만드는 사업이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피해 상담·치유·보호 전담 기관으로 내포신도시 흥성 지역에 새롭게 설립한다.

이 박람회에는 40개 국 1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 도는 그동안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으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도는 5개 1236억 원 규모의 기존 사업에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비는 5526억 원으로 우선 잡고 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ha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km, 갯벌 면적은 8000ha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ha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km, 갯벌 면적은 8000ha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가로림만 생태 가치 공공 인식 제고도 도가 기대 중인 효과다.

내년 확보한 정부예산은 설계비 10억 원으로, 도는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일의병장 최익현 관복 국가민속유산 지정

단령·사모·삽금대·목화·호패 5점
19세기 후반 연구자료 가치 높아

충남도는 항일의병장 면암 최익현의 의복 등 5점의 유물이 국가유산으로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은 최익현이 직접 착용했던 의복인 단령(團領)과 머리에 썼던 사모(紗帽), 허리띠인 삽금대(鍍金帶), 호패(號牌), 목화(木靴)이다.

국가유산청은 인물의 역사적 중요성이 크고, 19세기 후반 복식사뿐만 아니라 공예 기술과 재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단령은 최익현이 당하관(堂下官)이던 시기(1855-1870)에 착용한 공복으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다.

사모는 1870년 이후 당상관(堂上官)이던 시기

머리에 썼던 관모로, 2개 뿔이 좌우에 달려 있다. 양쪽 뿔이 얇고 성근 평직 원단이 겹으로 씌워 어른거리는 무늬가 특징이다.

대나무와 한지로 모자 틀을 만들고, 양쪽 뿔의 테두리에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사용한 점 등 조선시대 사모 제작 기술과 기본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관복 착용 시 허리에 두르던 삽금대는 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cellulose nitrate)로 추정되는 신소재로 제작한 모자 대모(玳瑁) 재질의 띠돈을 부착, 19세기 말 공예 기술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

목화는 신 밑창이 앞코까지 올라오는 형태에서 평평한 형태로 변화하는 1870-1880년대 과도기에 해당하는 유물로 이 시기 목화 제작 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패는 을묘년(1855년)과 최익현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착용



도덕사 최익현 초상
국가유산포털

자와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김재균 문화유산 과장은 “이번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 지정은 도내에 있는 많은 문화 유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당시 복식과 공예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면암(勉庵) 최익현(1833-1907)은 1900년부터 청양 정산에서 거주하던 중 일본의 침략에 맞서 1906년 전북 태인(現 鄭音)에서 의병을 창의하여 항일의병운동을 이끈 의병장이다.

문화유산과 041-635-2452



도덕사 최익현 유물 단령.



도덕사 최익현 유물 호패.

도덕사 최익현 유물 목화.

석탄화력 폐지지역 일자리 해법 머리 맞대

도-발전3사 노조 에너지전환 협의회 출범

충남도와 도내 발전3사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8월 29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중부·서부·동서발전 노동조합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도 에너지전환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대체발전소 추진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진국가(독일)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

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발전3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된 노동전환 지원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이다.

도는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2243

도정게시판



충남병원선 섬 여성 건강검진

충남도는 충남병원선을 활용해 의료 취약 지역인 섬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 대상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원선 투입은 군 단위 지자체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지정 병원이 있더라도 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와야 하는 섬 거주 여성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검진 당일 검사 결과, 검진 후 사후건강관리 상담까지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또는 어업인화인서를 발급받은 만 51세 이상(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성어업인 604명과 섬 거주 여성어업인 300명이 대상이다.

육지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은 자기부담금 2만원만 내면 된다.

/어촌산업과 041-635-4843

도 누리집 전면 개편

충남도가 충청남도청 누리집을 전면 개편해 13년 만에 새단장한 누리집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9월 2일부터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한 새로운 도 공식 누리집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달라진 주요 내용은 ▲복잡한 구조 개편 및 최신 전자정부 표준 적용 등 보안 강화 ▲청사 가상 투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안내 등 디지털 트윈 기반 도청사 3차원(3D) 공간 정보 콘텐츠 구축 ▲챗봇 서비스 등 검색 기능 강화 등으로 도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

특히 현실과 동일한 도청사 3차원 공간정보 콘텐츠는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모바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난 발생 시 제세동기 및 소화기의 위치 등도 안내한다.

/대변인 041-635-4891

로컬푸드매장 잔류농약 검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매년 시기별로 주로 소비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검사 건수를 최근 3년간 연평균 120여 건에서 170건으로 확대했다.

연구원은 생산자에게는 농산물 출하제한을 고지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을 수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수거 시 생산자에게 농약사용 안전수칙 책자를 제공해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이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52

충청남도 청년 대상 주거 상담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 운영기간 2024. 4. ~ 12.

■ 지원대상

충청남도 거주 또는 거주 예정 청년 ※ 청년 기준은 시군 조례에 따름

■ 상담내용

- 주택 전·월세 계약상담
- 집보기 동행
- 주거정책안내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누리집(홈페이지)
- 시군구청 담당부서 전화접수

■ 상담방법 사전신청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신청문의 거주 예정 시군구청에 신청

시군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041-521-4131
천안시 서북구	민원지적과	041-521-6133
공주시	민원토지과	041-840-8484
보령시	토지정보과	041-930-4164
아산시	토지관리과	041-540-2417
서산시	토지관리과	041-660-2277
논산시	토지정보과	041-746-5612
계룡시	민원토지과	042-840-2373

시군구명	담당부서	연락처
당진시	토지관리과	041-350-3812
금산군	민원지적과	041-750-2351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	041-830-2121
서천군	민원지적과	041-950-4379
청양군	행복민원과	041-940-2153
홍성군	민원지적과	041-630-1257
예산군	민원봉사과	041-339-7175
태안군	민원봉사과	041-670-2040

한·일 e스포츠 친선 교류전

충남도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보령머드 테마파크에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꿈에 도전해 가는 도내 청소년과 현재 교류 중인 일본 구마모토·나라·시즈오카 3개 현 청소년을 초청해 이(e)스포츠 친선 교류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전은 현재 엄청난 상승세로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발로란트’ 게임을 선정했으며, 교류전 성격에 맞게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청소년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게이머를 초청, 프로게이머가 되는 법 및 스크립트 운영 방법 등에 대한 피드백은 물론 체험존 운영, 게임사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64

충남도청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기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 외부 링크의 컬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당진 간척지서 연어 대량 양식

연간 생산 50톤 목표
수입 수산물 대체 기대



연어 치어.

충남도가 수입 수산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어를 육상에서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벼를 키우던 간척지에 최첨단 연어 양식장을 조성, 스마트 양식의 새 모델을 제시하며 수입 대체 효과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당진시 송악읍 일원 간척 농지에 조성한 순환여과(RAS) 육상 양식장에서 대서양 연어 양식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어 수입액은 2013년 1억 3649만 3000달러에서 지난해 5억 528만 7000달러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연어 수입액은 수산물

수입 총액 62억 1649만 2244달러의 7.9%로, 1위에 올라섰다.

당진 육상 연어 양식장 해수는 순환 여과 기술을 이용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양식장에 비해 사육수 사용이 적고, 질병 감염 위험이 낮으며, 오염 수 배출도 적다.

현재 당진 육상 연어 양식장에서는 내수에서 자랄 경우 무지개송어(육봉

형)로 불리는 스텔헤드(강해형) 3톤을 시범적으로 양식 중이다.

대서양 연어는 지난 5월 20만 개의 알을 입식·부화시켜 양식 중이며, 약 24개월 동안 5kg 안팎으로 키워 출하할 계획이다.

당진 육상 연어 양식장 연간 생산 목표는 50톤으로 잡았다.

도는 이번 당진 육상 연어 양식장이 수입 수산물을 대체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어 1kg 당 수입 단가는 1만 원 안팎, 국내 양식장 출하가는 5000~8000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육상에 조성한 만큼,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연어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과 041-635-4136

2026년 청양·논산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모 선정 국비 22억 확보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

충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도와 논산시가 각각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는 청양군 청산면 학암리 도 축산기술연구소 3만 4072m² 부지에 국비 16억 원을 투

입해 광역형 동물보호센터를, 논산시는 논산시 등화동 일원 1만 m² 부지에 국비 6억 원을 들여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주요 시설은 진료실, 유기동물 보호실, 입양실, 교육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사업에 돌입한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반려동물 전문교육이나 유기·유실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센터

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해 도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가 2개소 더 느는 만큼 센터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축산과 041-635-4107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에 황환택

"도민 행복사회 실현" 포부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하 진흥원) 제2대 원장에 황환택(사진) 원장이 취임했다.

신임 황 원장은 공주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백제중학교 수석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충남교원단

체총연합회 회장 등 교육현장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기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 2년 간이다.

황환택 원장은 "앞으로 기관의 효율

적 경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충남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인재양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으로 도민의 행복사회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041-635-9802

손글씨 레트로

독자투고

대략 1990년대를 시작으로 2000년을 거치면서 컴퓨터가 대중화되어 요즘은 손글씨를 쓸 일이 거의 없다. 컴퓨터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기안문도 손으로 써서 작성하고, 결재도 종이에 글을 써서 작성하였지만, 지금은 회사의 모든 업무가 컴퓨터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일상에서도 은행을 가던 관공서를 가던 모든 업무를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글씨를 쓸 일이 없어져버린 것

이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손 글씨를 써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약 30여 년 전 대학교 다닐 때 교양과목 레포트를 손으로 써서 제출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돌아와보니 대부분 학생들이 한글컴퓨터로 레포트를 작성해 했고, 그 시절 나도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 한글과 컴퓨터를 배운 기억이 떠오른다.

디지털시대에 바쁘게 살다가 가끔씩 휴대폰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다. 그래서 일까 얼마 전부터 평소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이나 멋진 표현이 있는 부분은 내 디어리에 한 두 문장씩 적어 두고 있다. 이 멋진 글이 모여 내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타자를 치는 것보

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학습능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제목의 책도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손글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매일매일 조금씩 손글씨를 쓰는 습관을 갖고 살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레트로를 느끼며 때로는 아날로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창양(경기도 남양주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원고 보내는 곳:

cnnews@korea.kr

문의: 041-635-4932

*도경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서산 부석에도 도시가스 공급

2026년부터 128가구 혜택

충남도가 서산시 15개 읍면동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석면에 2026년부터 도시가스를 특별공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9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서산시, 미래엔서해에너지와 '서산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128세대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서산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확보하고,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역시 특별 재원을 마련, 2026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도와 서산시, 미래엔서해에너지 등은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km 규모의 배관을 신설한다.

내년 인자면 청구아파트에서 부석면 취평교차로까지 주 배관을 설치하고, 2026년 취평교차로에서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부석중학교까지 주 배관과 공급관을 연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은 총 2916km로, 103만 5786세대 중 75.6%인 78만 284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1640억 원을 투입해 도내 8만 5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 공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가상공간 활용 '메타버스 공주' 구축

온라인 유입 생활인구 증가 도모 지역 지원 홍보 등 플랫폼 구현

공주시가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 공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비대면 소통 채널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도모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타버스 공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8월 23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메타버스 공주' 구축 사업은 비대면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시공간 제약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주의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가상공간을 통해 제공, 온라인 유입 확산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메타버스 공주

미니맵 및 플랫폼 구축 ▲온누리공주 회원정보 연계를 통한 메타버스 공주 활성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지 메타버스 구현 ▲5도2촌마을 소개 및 체험 콘텐츠 개발 ▲평생학습포털 연동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콘텐츠 개발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시민제도를 개편해 현재 19만명을 훌쩍 넘긴 온누리공주 시민 제도와 연계해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확장은 물론 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범 운영 서비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주시

2024년 충청남도 장애인 채용박람회

9월 12일(목), 13:00 ~ 16:00

아산 이순신체육관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42)



삽교호 바다공원 매주 토요일 밤 드론라이트쇼

11월까지 매회 10분이상 '비상'
개막일만 4만 2000여 명 찾아

8월부터 11월까지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바다공원 일원에서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5월 14일 열렸던 '당진 당진 드론 라이트 쇼'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야간관광 콘텐츠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체류시간 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중부권 최초의 상설 드론 라이트 쇼를 운영함으로써 삽교호 관광지의 관광 자원을 늘리고,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있다.

8월 31일 열린 '2024 당진 삽교호 드

론 라이트 쇼 개막공연'에는 4만 2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삽교호 드론 라이트 쇼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이어진다.

개막일에는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들의 길놀이 공연, 류경희 드림 댄스의 라틴댄스, 걸스힙합 공연과 스프링스의 밴드공연, '미래를 여는 도시 당진'이라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번 드론 라이트 쇼는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모습을 시작으로 삽교호 놀이동산 대관람차와 회전목마, 왜목마를 일출 등 풍성한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다.

드론라이트 쇼는 10분간 이어지며

'당진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대관람차, 왜목마를 일출 등 당진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10~11월에는 새로운 댄스 퍼스티벌과 함께 오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4회로 계획되어 있는 상설공연은 드론 600대 이상을 활용해 10분 이상의 공연을 보여준다. 8~9월에는 오후 9시, 10~11월에는 오후 8시에 비행 예정이다. 개·폐막일에 2회씩 총 4회로 계획되어 있는 특별공연은 드론 1000대 이상을 활용해 멋진 불빛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드론 라이트 쇼는 기상 상황 및 행사 당일 상황에 따라 공연시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당진시



8월부터 11월까지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바다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드론 라이트 쇼.

미디어아트로 재현하는 백제의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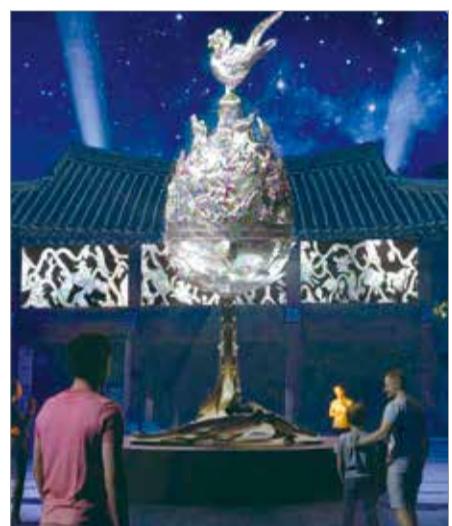
9월 6~29일 사비연희 주제
관북리 유적·부소산성 일원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가 '사비연희'라는 주제로 9월 6일부터 29일 까지 24일간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는 2021년 '사비, 빛의 화원'을 시작으로 '어라하의 유산', '소부리의 태양'에 이어 올해는 '사비연희'라는 주제로 성왕의 사비천도 축하연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총 3개 주제와 15개 세부 코스로 구성됐다. ▲빛의 길 ▲빛의 후원 ▲빛의 왕궁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 다양한 첨단 융합기술을 적용한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코스별로 진행된다.

특히 부소산문 외부 광장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채롭게 변하는 백제 금동대향로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며, 내부 광장에는 사비백제의 유물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아트 및 양방향 콘텐츠가 연출된다.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 이미지

관북리 야외공연장에는 부여 왕릉사지 출토 사리기와 사비백제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환상적인 디지털아트가 펼쳐지며,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이었던 백제의 위용에 맞게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실력 있는 국외 작가들이 사비백제를 주제로 만든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전시된다.

올해는 특별히 부여 객사와 부여 동현도 행사 공간으로 단장해 견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의 정신을 담은 백제의 아름다움을 미디어아트에 접목해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부여 객사 전면에 펼쳐지는 영상은 백제의 친란했던 문화를 춤으로 아름답게 연출하고, 부여 동현에는 의자왕이 일본 왕실에 선물한 것으로 전해지는 바둑판인 '목화자단기국'을 재현한 인터랙션 조형물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바둑판에 바둑돌을 놓으면 빛으로 연출되는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2021년부터 백제문화를 가장 친란하게 꽂고었던 성왕의 사비천도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올해는 그 이야기의 시작, 사비천도의 날을 미디어아트로 연출하여 관람객이 천도를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6일 오후 8시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부소산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선포식에서만 볼 수 있는 개막 퍼포먼스와 주제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부여군

보령머드 뷰티치유관, 새 관광코스 자리매김

피부 진정·노폐물 제거에 효과
보령시민·충남도민 할인 혜택

보령시는 7월 19일 개관한 보령머드 뷰티치유관(이하 뷰티치유관)이 개관한 달 차에 누적 이용객 1천명(무료 체험객 포함)을 달성하며 보령의 새로운 관광체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뷰티치유관은 보령시가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채용해 고급 서비스를 충남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보령시민, 충남도민 등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보령시민, 폐광지역 주민에게는 1회 결제 시 20%, 10회 결제 시 30%를 충남도민 및 자매 도시 주민에게는 1회 결제 시 10%, 10회 결제 시 20%를 할인한다.

서해안의 청정 머드를 활용해 ▲발



보령머드 뷰티 치유관 피부관리 모습.



(머드족욕_얼굴, 머리, 전신 관리시 무료) 1만 원 ▲얼굴(머드기초관리, 머드고급관리) 각 3만 원, 5만 원 ▲머리(머드 헤드스파) 3만 원 ▲머드 전신 관리 8만 원(하이드로 캡슐포함 10만 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한 금액권 50만 원권을 35만 원에 구매(중복할인 불가)할 수 있다.

보령머드는 피부 진정, 노폐물 및 피지 제거 등에 효과가 있으며, 타월한 성분을 바탕으로 피부 미용과 치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보령머드축제 기간(7.19 ~ 8. 4.)에는 600여 명의 방문객이 뷰티치유관을 이용해 축제도 즐기고 힐링도 하며 머드의 효능을 체험했다.

한편, 뷰티치유관은 보령머드테마파크 머드관 2층에 위치해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등은 휴무일이다.

예약 및 문의는 유선(☎041-936-9676)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도 구축 예정이다.

/보령시

홍성,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속도

서부면 일대 8.2ha 규모
2025년 1단계 준공 목표

홍성군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8월 2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관련 대학, 행정기관, 민간전문가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팜 전문가 자문단은 홍성군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관련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현장 전문기술 반영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관학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설계 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상시 소통하며 지속 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홍성군에 조성될 스마트팜 단지에 대한 기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스마트 농업기술 중장기 발전 방향과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등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서부면 광리 일대 8.2ha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내년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성군



구기자 김밥 만들었어요 99m 구기자 김밥 말기'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김밥을 들어이고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청양 고추구기자문화축제'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청양 고추 김장 체험, 구기자 발효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진/농수축산신문 박나라 기자

예산 맥주 페스티벌 35만명 방문

셰프 20명 상주해 위생·맛 관리
풍차바베큐·그릴바베큐 선보여

예산군은 8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 총 3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방문객보다 11만 명 늘어난 것으로, 7월 기준 예산군 전체 인구인 8만 2000여 명보다 4배가 넘는 규모다.

올해 축제는 '이번엔 통닭이다'를 주제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와 풍차바베큐, 그릴바베큐 등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더본코리아 셰프 20여명이 축제장에 상주해 위생과 맛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군은 축제 기간 예산시장 주변 상인들과 착한 가격, 청결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환영해유' 캠페인도 전개했다.

군은 지난해보다 축제 공간을 3배로 확대하면서 주차난을 막기 위해 종합운동장 등에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셔틀버스 운행 횟수도 늘렸다.

최재구 군수는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한 주민과 축제에 동참한 상인, 백종원 대표를 비롯한 더본코리아 직원의 열정 덕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군

긴 추석 연휴 '충남이면 충분해'



⑬ 추석연휴 가족 나들이 갈 만한 곳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토요일(9월 14일)을 포함하면 7박 8일로 추석 연휴가 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랜만에 친인척을 만나고, 조상묘를 찾아도 시간이 남는다. 해외로나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꼼꼼히 설계해보자.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심히 보았던, 대수롭지 않게 생기했던 고향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충남 구석구석의 매력을 느끼는 추석연휴도 값질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 '충남이면 충분한' 여행 팁(tip)을 소개한다.

백제문화단지 등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 열려

백제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7년에 걸쳐 충남 부여에 조성한 백제문화단지는 100만 평 규모의 역사테마파크다. 백제 왕궁인 사비궁을 과거 모습 그대로 재현했으며, 능사, 고분공원, 위례성, 생활문화마을 등이 마치 1500년 전 백제로의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듦다.

MBC 36부작 드라마 '계백', SBS 24부작 '신의', 52부작 '황후의 품격' 등을 촬영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 실내시설인 백제역사문화관은 전국 유일의 백제 역사 전문박물관, 금동대향로극장 등 백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충남이 고향이라면 자녀들에게 아빠를 자랑스러운 '백제의 후예'로 소개하기에 충분하다.

때마침 올해 추석 연휴에는 어린 자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15~16일 이틀간(오후 3시) 사비궁 천정전 앞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제 역사 퀴즈왕 선발대회가 열린다. 1등에게는 10만 원짜리 백화점상품권, 2등은 5만 원, 3등은 3만 원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16, 17일(오전 10시, 오후 3시 반)에는 역사문화관에서 떡매치기 체험, 17일(오후 3시)에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가, 당일 오후 4시부터는 딱 대회가 열리고 상품도 주어진다.

이밖에 토종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자라는 안면도자연휴양림, 각종 수목과 정원이 어우러진 안면수목원도 인근 영목향과 보령해저터널과 연계해 코스를 꾸린다면 특별한 연휴 여행이 될 것이다.

서산시 해미읍성도 권할 만한 곳. 이곳은 조선시대 육군 최고 지휘기관인 충청병영이 있던 곳이다. 또 병인양요 이후 1000명의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처형당한 순교지이기도 하다. 시간이 멈춰 버린듯한 성벽, 크고 작은 돌마다 읍성이 지닌 온 역사를 머금는 듯하다.

무료로 한복을 갈아입고 성곽을 배경으로 과거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성안에는 춤차, 오미자차, 증편, 식혜 등을 파는 전통찻집, 그리고 각종 전과 막걸리 등을 파는 주막이 있어 과거로 빠져들 수 있다.

추석연휴인 17~18일 이틀간(오후 2시) 서산지역 '뜬 쇠 예술단'의 전통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이밖에 토종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자라는 안면도자연휴양림, 각종 수목과 정원이 어우러진 안면수목원도 인근 영목향과 보령해저터널과 연계해 코스를 꾸린다면 특별한 연휴 여행이 될 것이다.



온 가족이 즐거운 가을 미식 여행

충남에서 춤전해! ⑧ 9월 먹거리 축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다. 여름 내내 무더위와 써름하느라 지친 몸은 저절로 제철 음식을 갈구한다. 제철 음식이 지닌 매력은 맛은 물론 영양이 둘 뿐 담긴 데에 있다. 바단 체력을 회복하기에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든든한 한 끼는 보약이나 다름없다. 충남의 9월은 가을 먹거리 축제의 본격 시즌을 알린다. 전어, 꽃게와 대하, 거봉포도에 이르기까지 전국구 명성을 지닌 축제들이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초입, 온 가족이 함께 신선한 제철 먹거리로 체력을 춤전해 보자.



▶서천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

=가을의 진미, 전어와 꽃게의 시즌이 시작됐다. 고소한 풍미를 가득 담은 전어와 살이 가득 찬 꽃게를 만나려면 서천 홍원항으로 지금 달려가면 된다.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운 전어구이와 전어회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듯' 잊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영양분이 풍부한 서천 갯벌에서 잡힌 꽃게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홍원항에

서는 박대, 서대, 우럭, 봉장어 등 다양한 해산물도 만날 수 있다. 맨손 전어 잡기 체험, 홍원항 보물찾기, 수산물 깜짝 경매, 홍원항 수산물 장터 등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특별 이벤트로 밴드 경연대회가 열려, 드든하게 채운 포만감을 음악으로 달랠 수 있다.

▶기간=8월 24일(토)~9월 8일(일), 장소=서천군 서면 홍원항 일원, 문의=041-950-4765



▶홍성 남당항대하축제=홍성 남당항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명소. '대하'하면 누구든지 홍성 남당항을 떠올린다. 가을의 미각을 돋우는 우리나라 최대의 대하축제가 시작됐다. 생으로 즐기는 탱글탱글 달콤한 제철 신선한 대하는 오직 남당항대하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소금구이와 짬, 튀김과 탕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천일염으로만 사용하여 대하를 판매해 더욱 특별하다. 대하구이는 1kg에 5만 원에 즐길 수 있고 대하 포장은 1kg에 3만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하잡이 체험, 대하 까기 대회, 대하 경매 등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양한 먹거리의 야시장도 운영된다.

▶기간=8월 30일(금)~10월 31일(목), 장소=홍성 남당항 일원, 문의=041-634-0104



▶천안 입장거봉포도축제=천안은 우리나라 거봉포도의 최초 생산지. 최적의 토양과 기후, 강우량 등 천혜의 환경에서 고품질 포도가 생산된다. 당도가 매우 뛰어나며 육질이 연하고 고급 풍부한 명품 포도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입장거봉포도가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입장거봉포도축제는 '원조 거봉포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 판매 및 시식 코너에서 하루 500박스, 총 2500박스가 판매되며 시식도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인근 13개 농장에서 포도 따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등 공연이 펼쳐지고 룰렛, 뽑기 등 즉석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간=9월 6일(금)~10일(화), 장소= 입장거봉포도 휴게소 주차장, 문의=041-521-6841

/이용 스토리미디어 대표

15개 시군마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

홍성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감을 사로잡을 '홍성 5락(樂) 여행'을 추천했다. 아름다운 자연과 깊이 있는 문화유산, 흥미진진한 체험활동과 음식으로 추석 연휴를 잊지 못할 추억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먼저 제1락(眼)은 서해랑길 63코스를 따라 걸으며 만나는 놀궁리 해상파크의 시원한 바다 전경과 홍성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타트인 서해 모습, 그리고 남당노를 전망대에서 감상하는 황홀한 낙조를 추천했다. 제2락(耳)은 음식으로 가을 미식 여행의 백미인 남당항 대하를 추천했다. 때마침 추석연휴 기간이 대하축제와 겹친다. 제3락(口)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서 야간에 펼쳐지는 화려한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음악분수쇼다. 추석 연휴에는 '추억의 콩쿨대회'와 '코스모스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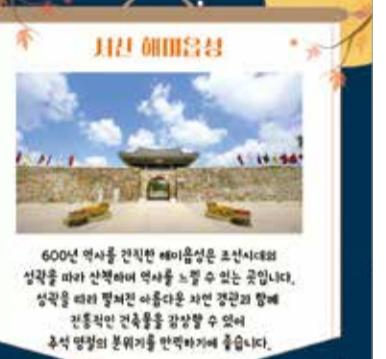
아산외암마을도 추석 때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충청지방 고유의 양반집과 초가집, 조선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초가지붕 등이 잘 보존돼 있다.

추석 집안일로 다소 지쳤다면 덕산온천을 추천한다. 600년 역사를 지닌 덕산온천은 어머니의 젖과 같이 유익하고 땅에서 나온 약수라는 의미에서 자구유(地球乳)라고도 불린다.

신경통을 비롯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기도 이름이 높고, 인근 수덕사, 윤봉길기념관, 메타세콰이터 활동장 등과 연계하면 제격이다.

11만 평 임야에 6000여 종의 수목과 꽃들이 있는 청양 고운식물원, 부여 궁남지도 추석을 맞아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모든 순간 아름다운 궁남지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궁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으로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궁남지는 봄부터 여름까지 벚꽃과 초록색 연잎으로 물들어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도 그늘 아래를 걸을 수 있어 산책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9월이 다가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연꽃(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궁남지에는 연 말고도 수련, 열대수련, 각종 수생식물 등이 있습니다.

개화시기는 식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6~9월 사이라고 합니다.

물가에서는 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궁남지의 오리는 사람이 익숙한

지 가까이 접근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리 뿐만 아니라 간혹 자라도 만나볼 수 있으니 방문 시에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궁남지 중앙에는 포룡정이 있습니다. 물위에 떠있는 포룡정이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분수와 어우러져 더욱 멋있다고 느껴집니다.

야간에는 포룡정에 불이 켜져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합니다.

/도민리포터 Woogie

충남도정신문 9월 도민참여 이벤트

충남도정신문 1011호·1013호의 7면 <충남이면 충분해>에 소개된 관광지 중 1곳 또는 충남의 관광지 1곳을 방문해 인증샷과 방문 후기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립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령 삼시도, 고대도, 외연도, 호도, 가의도
서천 장항승리해수욕장,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청양 칠갑산도립공원, 천장호출렁다리, 지천구곡

기타 충남도내 모든 관광지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 10월 중 당첨자 개별 안내 혹은 지면 발표



충남의 종가

9) 아산 예안이씨 참판댁 종가



외암마을 참판댁(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아산시

명성황후와 5촌...왕실과 밀접한 관계

외암마을 정착과 가계 형성

예안이씨는 전의이씨에서 분파된 성씨이다. 고려후기 보문각제학(국립연구기관의 부원장급)을 지냈던 이익이 예안으로 분적하면서 가계가 형성되었으며, 아산 송악면 외암마을에 입향하게 된 것은 16세기 중반 이사종(李嗣宗)에 의해서였다.

이사종은 외암마을 평택진씨 진한평(陳漢平)의 딸과 결혼한 후 외암마을 골밀에 살았다. 1546년에는 아버지 이연(李璉)의 묘소를 인근의 송악 사기 소리에 조성하는 등 외암마을과의 연고를 다졌다.

예안이씨가 아산에서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한 것은 17세기 이후, 이사종의 5대손 이간(李柬, 1677~1727)대에 이르러서이다. 이간은 호락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뛰어난 성리학자로 조선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1723년에 자신의 문중마을이 된 외암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외암기」를 남겼으며, 이 글에서 예안이씨의 외손 파평윤씨·의령남씨·평산신씨가 이웃해 살았는데, 지금은 예안이씨가 주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간에게는 이관병·이이병·이사병·이정병 네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직을 지낸 이력이 있어 각각 진사공파·영천공파·참봉공파·병사공파로 분파되어 소종을 이루었다. 이번 호에서 다루는 참판댁 종가는 이간의 둘째 아들인 이이병을 분파조로 모시는 종가이다. 이이병은 생원시에 입격하고 경산현감·영천군수를 지냈으며, 1760년에는 아버지 이간의 원고를 정리하여 『외암유고』를 간행하였다.

이간 이후 예안이씨는 10명의 소과 입격자와 2명의 대과 문과 급제자, 3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등 크게 번성하였으며, 특히 19세기에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당시 이들의 벼슬에 따라 붙여진 택호[참판댁, 영암군수대, 송화군수대, 병사댁, 참봉댁 등]가 아직까지 불리고 있어 외암마을을 예안이씨의 역사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퇴호거사 이정렬

이간의 4대손인 이상규는 26세[1877]의 나이로 자식을 두지 못한 채 요절하여 이정렬(李貞烈, 1868~1950)이 양자로 들어가 대를 잇게 된다. 이정렬의 할아버지인 이원집은 한산이씨 이구년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구년의 또 다른 딸이 여흥민씨 민치록(민유중의 5대손)과 결혼하여 명성황후를 낳았다. 따라서 이정렬은 명성황후와 5촌지간으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명성황후는 이정렬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유년시절에는 공부하여 출세할 것을 권유하고 이정렬이 16세[1883]에 결혼할 때는 직접 비단옷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정렬은 1891년 대과 문과에 급제하고 고종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규장각직학, 비서원승, 궁내부특진관(차관급) 등을 역임하였다. 때문에 고종과의 관계도 긴밀하였는데, 1901년 이정렬이 관직을 그만두고 외암마을로 내려가려



참판댁 큰집 입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하자 「퇴호거사(退湖居士)」라는 호를 내리고 이정렬이 가르쳤던 영친왕에게 명하여 「퇴호거사」와 「일심사군(一心事君)」이라는 글을 써 내렸다.

그러나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자 외암마을로 낙향하였다. 이후 자손을 교육하는 한편 아들과 조카들에게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 것, 일제가 들어온 신학교에 가지 말 것, 일본에서 벼슬을 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등 항일정신을 유지하였다. 1919년에는 칠은계 구성원과 함께 「칠은사」를 건립하였다. 이곳에 모여 나라를 걱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암암리에 충청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고종에게 하사받아 지은 참판댁

아산 송악면 외암마을에 위치한 참판댁은 이간의 6대손 이정렬이 고종으로부터 자금을 하사받아 지은 집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의 택호가 참판댁이나 실제로 이정렬은 참판을 지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참판댁으로 불리는 이유는 1894년 갑

오개혁을 통해 관제가 개편되어 참판직은 사라진 상태였으나, 참판과 같은 종2품 관직인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이력 때문에 참판댁이라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참판댁에는 예안이씨 이정렬의 손자인 이득선씨가 살고 있다. 젊은 시절 이득선씨는 서울에서 토목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1970년에 부친상을 당하면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부친 묘소에 3년간 시묘를 했다고 한다. 이후 고향에 돌아와 종가 내외 활동을 하며 명예를 지키고 있다.

이득선씨 등 참판댁 후손들은 아산시와 연계하여 고택 및 마을 활용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고택을 활용한 민박과 고구마캐기, 천연염색 등 체험을 둘째 며느리인 이효숙씨가 직접 진행하며 해당 체험은 모두 외암민속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판댁 추석맞이 풍습

참판댁에 살고 있는 이득선·최황규 부부와 가족들은 멀리서 찾아오는 친척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추석맞이를 시작한다. 차례에 사용되는 가양주 연예주를 빚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연예주는 이득선의 오대조인 이원집(李源集, 1825~1879)이 개발하였고 『차농(治農)』이라는 요리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6대째 내려오고 있다.

연예주는 고종의 수라상에 진상되었던 술로, 임금이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종가에서는 오직 제사에만 사용한다고 한다. 최황규씨는 충청남도 무형유산 「아산 연예주」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



이득선씨가 고종이 하사한 「일심사군」 현판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예주. /아산시 문화유산 홈페이지

으며, 둘째 며느리 이효숙씨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차례음식은 추석 보름 전부터 준비하는데, 적은 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를 사용했고 숭어·복어·오징어도 올렸다. 예전에는 음식준비도 일가식구들이 모여 품앗이로 도와주고 친척도 40명 넘게 찾아와서 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종부 최황규씨는 조상을 섬기는 마음과 정성만 있으면 된다며, 쌀과 밤·대추·감 등은 직접 농사지은 것만 쓰고, 한과와 다식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고 한다.

여담으로 참판댁 안채 대들보에는 낡은 종이가 여러 겹 붙어있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연초에 한해를 편안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귀한 글귀를 써 붙이거나, 귀빈이 방문했을 때 일종의 방명록으로 써 붙인 것이라고 한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쉬며 가풍을 즐기는 모습이 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이정렬 초상.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도록

인물	특이사항, 활동
이사종(李嗣宗)	입향조
이간(李柬, 1677~1727)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 호락논쟁 세자시강원서의, 종부시정 역임
이이병(李頤炳, 1711~1773)	영천공파·분파조, 경산현감, 영천군수 역임 『외암유고(巍巖遺稿)』를 간행
이정렬(李貞烈, 1868~1950)	규장각직학, 비서원승, 궁내부특진관 역임 칠은계를 조직하여 충청지역 독립운동 지원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자주 만나지만 폭신한 저 구름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모바일 좌석 배정이 늦어져서 맨 뒷자리에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다면 내게 내어주지 않았을 풍경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부리는 마술입니다.
 비행기 옆 날개가 꼭 물고기 꼬리 같습니다.

하늘바다 물고기

하늘바다 물고기는
 제 소리에 놀라
 꼴지 빼지게 도망간다



신진청년예술인 - 임정현 금속공예·주얼리 디자이너



▶ 커버업 주얼리/ brass, plastic

주얼리는 돋보이고 싶은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가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얼리의 기능을 통해 외적 결함을 커버할 수 있는 장신구를 개발하고자 했으며, 주얼리에 스템핑 기능을 더해 본인이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크기대로 커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각자의 스트레스와 고통의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가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 작가노트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같이 추상적인 요소를 가시화 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돋기를 희망한다.
 개인의 내면 세계와 추상적 요소를 시각화 하는 작업은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여정과 같다. 작품으로 하여금 관람자와 창작자에게도 심리적 여정을 제공하는 작품이자 오브제를 제작하고자 한다.

▶ 앞으로 전시 일정

● 非가시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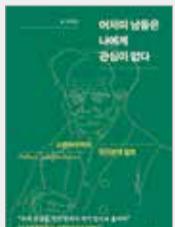
일정: 2024-11-12 ~ 19
 장소: 충남 공주시 대통령길작은미술관



▶ 임정현 약력

- 2024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과 석사 수료
- 2024 청년공예인 단체전시 <MX-TAPE> 총괄 기획 및 참여
- 2024 <공예 마실> 공예 프로그램 강사
- 2023 K-핸드메이드페어, 청주 한국공예관 <공예의 계절> 전시 참여
- 2023 압구정 빙ican 쇼룸 전시, 성수 빙ican 굿즈아울렛 참여
- 2022 국제디자인트렌드대전 특별상
- 2022-2023 국립공주박물관 전시연계 프로그램
- 2022 국립공주대학교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졸업

사서들의 서재



여기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쇼펜하우어/알토북스/2024

쇼펜하우어의 '여기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심오한 통찰과 삶의 지혜가 담긴 작품이다. 이 책은 인간의 고독과 사회적 소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준다.

책의 핵심 주제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남들의 관심을 받기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지나치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사유와 일상적인 예시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자기 성찰과 독립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인간 관계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밀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그의 조언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 관계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지침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얹매여 있지 않은지,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이 책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유재열 사서(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9월 문화행사

공연 전시



세상의 빛 詩와 조각의 만남

기간 2024-09-05 ~ 11-28
 장소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시간 10:30
 문의 041-550-9102



연극 <옥탑방 고양이>

기간 2024-09-06 ~ 07
 장소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문의 041-930-3710



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龍)

기간 2024-09-10 ~ 25-02-09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시간 09:00
 문의 041-850-6300



뮤지컬<신 별주부전>

기간 2024-09-12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30



콘서트<낭만의 향연 포레와 생상스> 연극<新별파전>

기간 2024-09-12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9:30
 문의 1566-0155



기간 2024-09-21 ~ 22
 장소 천안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7:00(토), 14:00(일)



<프린세스 공주뮤지컬쇼>

기간 2024-09-22
 장소 공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간 13:00/15:00
 문의 041-840-2204



클래식 <살롱 드 공주>

기간 2024-09-26
 장소 공주문화예술회관
 시간 11:00
 문의 041-852-0858



<안녕!여름 X 안녕?가을> 페스티벌

기간 2024-09-28
 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00
 문의 042-840-3712



기간 2024-09-27 ~ 28
 장소 신정호국민방지아외음악당
 시간 금 15:00, 토 14:00
 문의 010-2579-6071

멋진 충남도민의 삶을 설계하기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Q&A

Q. '어업공동경영주'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예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가의 여성들은 어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어업공동경영주' 제도의 도입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A. '어업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의 아내들은 남편과 동등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동경영주」 제도 마련을 통하여 여성어업인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어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비율은 2022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어업인의 52.6%로, 전국 평균여성어업인 비율 49.8% 보다 높은 편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어업인은 어가 및 어업인구의 감소, 어촌인구의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점차 침체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충청남도의 여성어업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공동경영주 여부란에 표기하여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임우연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젠더 퀴즈

위의 글을 읽고 문제를 맞춰보세요.

1.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를 경영주로 인정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 ① 공동경영주제도 ② 공동대표제도

2. 언제부터 여성 어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게 되었나요?

- ① 2009년 ② 2019년

문제: 1. ① 2. ②



말못할 불편함, 항문소양증

공공의료원 칼럼

요즘 여름철에 말 못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항문소양증이다. 항문소양증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항문 및 항문 주위 피부 또는 외음부가 지속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심하게 간지러운 증상이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발되는데 이 중 배변 후 항문주의에 묻은 대변이 소양증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이다. 그러나 배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문지르는 경우, 특히 비누 또는 다른 세정제로 심하게 닦을 경우 피부가 극으로 항문소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 커피, 차, 콜라, 주류 및 초콜릿, 감귤류, 비타민C정, 토마토 등을 과

량 섭취하였을 때도 생길 수 있다. 그 외 치질이나 치루, 직장암과 같은 소화 기관 하부를 침범하는 국소적 질환, 감염과 기생충 질환, 건선, 습진, 치루와 같은 피부 질환이 원인이 되어 항문소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불안, 초조, 긴장 및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항문 소양증이 흔히 나타나며, 성적 자극과도 관계가 있다.

증상은 항문이나 항문 주위 피부, 회음부 및 외음부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 증상을 유발합니다.

가려움 때문에 항문을 긁게 되면 항문 주위의 피부는 붉게 변한다. 이 증상이 흔히 밤에 악화되어 수면을 방해하기도 한다.

항문소양증이 만성화 되면 항문 주변을 반복해서 긁음으로 인해 항문 주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통증이 생

기게 되거나 항문 주위 피부가 두꺼워져 가죽처럼 변할 수 있다. 또 반복하여 긁으면 항문의 피부가 손상되어 통증이 심한 국소적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항문소양증은 그 자체가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고, 항문 부위의 국소적인 원인뿐만 아니고 전신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문소양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식단과 약물, 배변 습관, 배변 후 항

문을 닦는 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또한 치질, 치열, 치루와 같은 직장 질환이나 건선, 습진, 치루와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항문 부위의 직장 수지 검사를 시행하여 항문소양증을 확인할 수 있다.

항문소양증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항문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비누는 항문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그

냥 씻도록 한다. 씻은 후에는 자극성이 없는 천으로 닦아내는 것이 제일 좋다. 밖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젖은 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휴지로 닦은 후에 항문의 피부를 항상 잘 건조시켜야 한다.

국소 도포제, 항생제나 국소 마취제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 청결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너무 꽉 조이거나 땀 흡수가 안 되는 속옷은 피하는 게 좋다.

커피, 우유, 흥차, 술 등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긁는 것은 피부 손상을 일으키며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므로 가려울 때는 긁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대변



김동환
서산의료원 건강증진센터장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아래 문장을 읽고 누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 박 사장, 백 사장, 조 사장, 남 사장이 잡은 물고기는 3마리, 4마리, 5마리, 7마리로 모두 서로 달라요.
- 백 사장과 남 사장의 물고기 개수는 3마리 차이가 납니다.
- 남 사장이 물고기 1마리를 더 잡았어요.
- 조 사장은 박 사장보다 물고기 2마리를 더 잡았어요.

박 사장 •

- 물고기 3

백 사장 •

- 물고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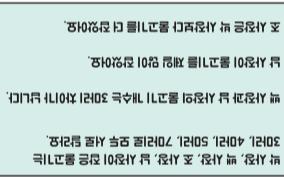
조 사장 •

- 물고기 5

남 사장 •

- 물고기 7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워드실버



:吕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충남도정

순조 즉위 후 3년간 수렴청정

충남여성열전

⑦ 정순왕후

왕이 어려서 보위에 오르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왕 뒤에 앉아 국정을 이끈다. '수렴청정'이 그것이다.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11살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한다. 이에 영조 임금의 계비 정순왕후가 제일 높은 어른으로써 순조의 뒤에서 3년간 수렴청정을 한다. 짧지 않은 세월, 정권을 잡은 셈이다.



십화/맹주석

영조의 계비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제일 높다고 하지만 의붓 아들로 영조의 미움을 받아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 혜경궁 흥씨 보다 10살 아래다. 며느리가 나이가 많지만 궁궐 예법상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 훗날 정조로 왕위에 오른 손자 역시 7살 차이지만 할머니 위상이다. 이렇게 정권을 잡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는 1745년 충남 서산시 읍암면 유계리 출신으로 15세 나이로 영조의 왕비로 책정 받아 궁궐로 들어간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죽자 그의 계비로 간택된 것인데 이때 영조의 나이가 66세. 따라서 국왕과 나이 차이가 50세가 넘는 가장 많은 왕비가 된 것이다. 정순왕후의 5대 조는 경주 김씨 학주공파 시조 김홍욱으로 효종때 충청감사, 황해도 관찰사 등 요직을 거쳤다. 정순왕후로 입궐한지 3년만인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정순왕후는 이 사태가 훗날 어떤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지 예상했을까. 세손, 그러니까 뒤주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정순왕후 생가.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순왕후의 오빠 김귀주가 혜경궁 흥씨에게 문안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남인 등의 공격을 받았다. 결국 그의 오빠는 1776년 흑산도로 귀양을 갔으며 그곳에서 10년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어 개혁군주로 신망을 받던 정조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11살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됐고 궁중의 제일 어른 위치가 되어 버린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그는 먼저 천주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 무렵 남인 계통에서 천주교가 성행하였고 정조 임금도 생전에 묵인했던 것. 황사영이 청나라에 있던 주교에게 프랑스군의 도움을 요청했던 소위 '황사영백서'가 사전에 발견되어 역모로 인정, 수백명의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었다. 1801년 소위 '신유박해'라 하여 천주교신자 이승훈, 정약종 등 100여 명이 처형되는가 하면 400여 명이 유배되는 '신유박해'도 정순왕후 때 일어났었다. 이때 대표적인 실학자로 정조의 종애를 받았던 다산 정약용도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이나 유배생활을 했다. 그는 긴 유배생활에서도 '목민심서'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정순왕후의 이와 같은 천주교 박해는 오빠를 흑산도로 귀양가 죽게 한 원한도 있었을 것이고 남인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때 혜경궁 흥씨의 남동생 흥남의 역시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다.

이처럼 풍파의 세월을 보냈던 정순왕후는 1805년 61세로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원장

온·오프라인으로 국산 수산을 구매하세요!

최대 60% 할인 받으세요!

8.21(수) ~ 9.15(일)

오프라인

Homeplus

emart

TRADERS

GS리테일

LOTTE Mart

농협 하나로마트

온라인

coupang

Kurly

무미한방시클

kakao

SSG.COM

11번가

**포함 총 18개 업체
제한시 자동 할인 적용**

**포함 총 24개 쇼핑몰
할인쿠폰 발급 후 적용**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갈치

마른 김

추석 성수품 최대 50% 할인!

황전복 세트

갈치·고등어세트

갈비세트

젓갈 4종 세트

갈치살로 만든 어묵세트

다시마 전복장 세트

우물갈치 선물세트

프리미엄 영광굴비 세트

제주 옥돌세트

구매문의 | 수협유통 1588-3355, 수협쇼핑 www.shshopping.co.kr (1666-3566)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제이에스건설산업(주)	경리 사무원(건설)	1	041-551-3959	연 3,000만원	논산	(주)에스비파널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	070-4333-7302	연 3,300만원
천안	(주)하이메탈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041-554-6061	연 2,800만원	논산	휴먼테크(주)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조작원	1	041-734-5687	월 250만원
천안	(주)프로미스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및 검사원	5	041-417-2223	월 320만원	보령	(주)케이디에프	기타 기계 조작원	5	041-931-0382	연 4,000만원
천안	한일캔(주)	제조 단순 종사원	3	041-623-7324	연 5,000만원	보령	(주)에스비정공보령2공장	생산·품질 사무원	1	041-933-5530	연 3,500만원
아산	(주)두원전자 도고공장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	041-536-8304	연 3,800만원	보령	(주)낭만푸드	사무 보조원	1	041-935-3999	연 2,700만원
아산	광성브레이크(주)	생산·품질 사무원	3	041-541-5851	연 3,000만원	보령	에이프로젠아이엔씨(주)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	041-931-9377	월 220만원
아산	(주)제이앤아이워터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2	041-531-8483	연 3,200만원	계룡	지에스이엔이(주)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10	042-712-0712	연 2,600만원
아산	(주)거성	CNC 선반 조작원	1	041-585-6900	연 2,800만원	계룡	대영종합건설(주)	경리 사무원(건설)	1	042-826-5588	월 300만원
당진	대성스틸산업(주)	생산·품질 사무원	1	041-355-8490	연 2,800만원	홍성	서해수산푸드(주)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2	041-641-5400	월 300만원
당진	(주)세라코닉	지게차 운전원	1	041-970-7901	연 3,000만원	홍성	대한산업	제조 단순 종사원	3	010-5555-7944	연 3,600만원
당진	(주)성육 당진제1공장	생산·품질 사무원	1	041-358-2800	연 2,700만원	예산	(주)천일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041-332-6400	연 3,000만원
당진	(주)이엔엠	제조 단순 종사원	3	041-352-0137	월 207만원	예산	(주)한울조경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자	3	041-334-8873	연 4,000만원
서산	(주)대한하이베링(지점)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	041-666-0960	연 3,500만원	태안	태안의료기복지센터	그 외 사회복지 종사원	2	041-672-3345	월 250만원
서산	(주)충남알루미늄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	041-681-9912	연 4,200만원	태안	한전산업개발(주)태안사업처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11	070-4851-3034	연 3,400만원
서산	(주)동원유리	공장 전기관리원	1	041-663-0238	연 3,600만원	서천	(주)해성푸드텍	식품기계 설치·정비원	1	041-956-3711	연 3,500만원
서산	농업회사법인에이에이시(주)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0	010-3320-8042	월 220만원	서천	어업회사법인명품김(주)	생산·품질 사무원	1	041-953-8983	월 300만원
공주	(주)정원엔지니어링	지게차 운전원	1	041-852-8552	월 350만원	부여	(주)대명철강	제조 단순 종사원	3	041-836-9519	연 3,400만원
공주	(주)우먼패키지	기타 제품 제조 관리자(공장장)	1	041-858-9296	월 400만원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빌딩 전기관리원	1	041-830-8410	월 223만원
공주	(주)이앤에이연구소	환경공학 시험원	2	041-881-1800	월 250만원	금산	(주)하이푸드텍	지게차 운전원	1	041-751-4513	연 3,400만원
공주	(주)큐하이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	041-857-8663	연 3,500만원	금산	(주)비아트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	041-752-1256	월 250만원
논산	(주)재연에프앤비	생산·품질 사무원	1	041-741-7767	연 3,500만원	청양	경산종합건설합자회사	건축 현장소장	1	041-943-8771	월 500만원
논산	(주)빙고씨푸드	제조 단순 종사원	1	041-734-1743	월 250만원	청양	(주)보민환경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	1	041-943-7436	연 3,000만원

“육묘장 등 다양한 농업 사업으로 성과 일궈”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예산 현광농원 이동희 대표

겨울 비수기 타작물 2모작·드론방제 시도
분질미·스마트팜으로 미래 농업 준비

수도작, 타작물(콩, 밀 분질미), 드론 방제, 육묘장, 농작업 대행 등 다양한 작목과 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농부를 만났다. 예산군 삽교읍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수도작과 육묘장을 이어받아, 다양한 농업 사업을 추가로 펼치며 성과를 이뤄가고 있는 현광농원 이동희(32)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 대표는 승계농으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업을 보고 도우며 자랐다.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어받을 생각으로 농업 관련 회사에서 종사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생각보다 이르게 농업에 뛰어들었다는 이 대표는 “조금 더 빨리 농업에 뛰어들 걸 후회한다”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생기면서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땅값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더 일찍 내려와서 농업을 배웠으면 지금보다 많은 성장을 이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수도작과 육묘장을 기반으로 드

론 방제, 타작물 재배, 농작업 대행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는 “겨울에만 쉬자”라는 마음으로 남는 시간에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타작물로 2모작을 시도했다”며 “수도작도 제가 내려온 이후로 규모가 2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드론 방제 활동과 농작업 대행을 합쳐 올해는 매출 3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예산청년영농조합법인도 설립했다. 이 법인은 드론 방제와 농작업 대행 등을 통해 지역 농업에 기여하며, 초기 5명이었던 인원은 현재 13명으로 늘어났다. 그는 “청년 농업인들이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과수 방제 및 축사 방제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도전한 작물인 ‘분질미’에 대해서는 “분질미는 일반 쌀보다 생육 기간이 한 달 정도 짧고 구멍이 많이 뚫린 입자로 쌀가루용

으로 재배된다. 올해 처음 재배하게



농업용 드론을 조종하는 이동희 농부. 그는 예산청년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드론방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되는데 앞으로의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규모를 키우고 가공장도 함께 운영해 볼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네덜란드 해외 연수를 다녀오며 스마트팜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라면서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통해 시작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같이 다양한 작목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새로운 작물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점점 할수록 욕심이 난다. 더 열심히 해서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들과의 교류에도 열심이다. 2021년에는 충청남도 4-H 흥보부장으로 활동하고 2022년~2023년 예산군 4-H 회장을 연임했다. “농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농업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일단 농업에 대한 꿈이 있다면 빨리 내려오라고 말해 주고 싶다. 대신 자금 계획은 확실히 세워서 내려와야 한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저금리의 대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농업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해든 deun127@korea.kr

낡은 집에 새 생명 불어넣은 당진 청년들

신평면청년연합회, 집수리 봉사
노부부집 도배장판·가스 배관 개선

기온이 33도에 육박했던 8월 17일 신평면청년연합회의 손길로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노부부의 집이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다. 이날 신평면청년연합회(회장 정규용)가 올해 첫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 <사진>

신평면 거산1리 이장을 통해 어려운 가구를 추천받았으며,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대상으로 했다.

신평면청년연합회원 12명은 이른 아침 집결해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



고, 싱크대를 교체했으며 장판도 새 것으로 대체했다. 특히 인테리어업을 하는 정규용 회장은 특기를 발휘해 새집처럼 깔끔하게 도배를 마쳤다.

노부부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들은 임상목 당진LPG가스협회장이 가스스타이

며 설치 등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했다.

조건희 사무국장은 “잡동사니가 가

득해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울 정도였다”라며 “동물 사체와 쥐똥, 구더기가 곳곳에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들의 봉사활동에 거산1리 마을에서는 점심 식사를 직접 준비해 제공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

태안군, 실버케어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신중년 18명 대상 3주간 진행
치매예방관리사 등 3개 과정 수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신중년 총’이 실버케어 관련 3개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료하는 기쁨을 맞았다.

실버케어 자격증 취득과정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3주간 ▲ 치매예방관리사 양성 과정 ▲ 실버체조 강사 과정 ▲ 실버웃음 레크리에이션



강사 과정 등 실버케어 관련 3개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료자들은 3주간의 교육기간 하루 6시간씩 주 4회, 3주간 대한치매예방협회 강사진들로부터 ▲뇌건강지도 ▲실버인지교육 ▲실버체조 ▲웃음지도 ▲

레크리에이션 ▲미술지도 등 관련된 수업을 받으며 역량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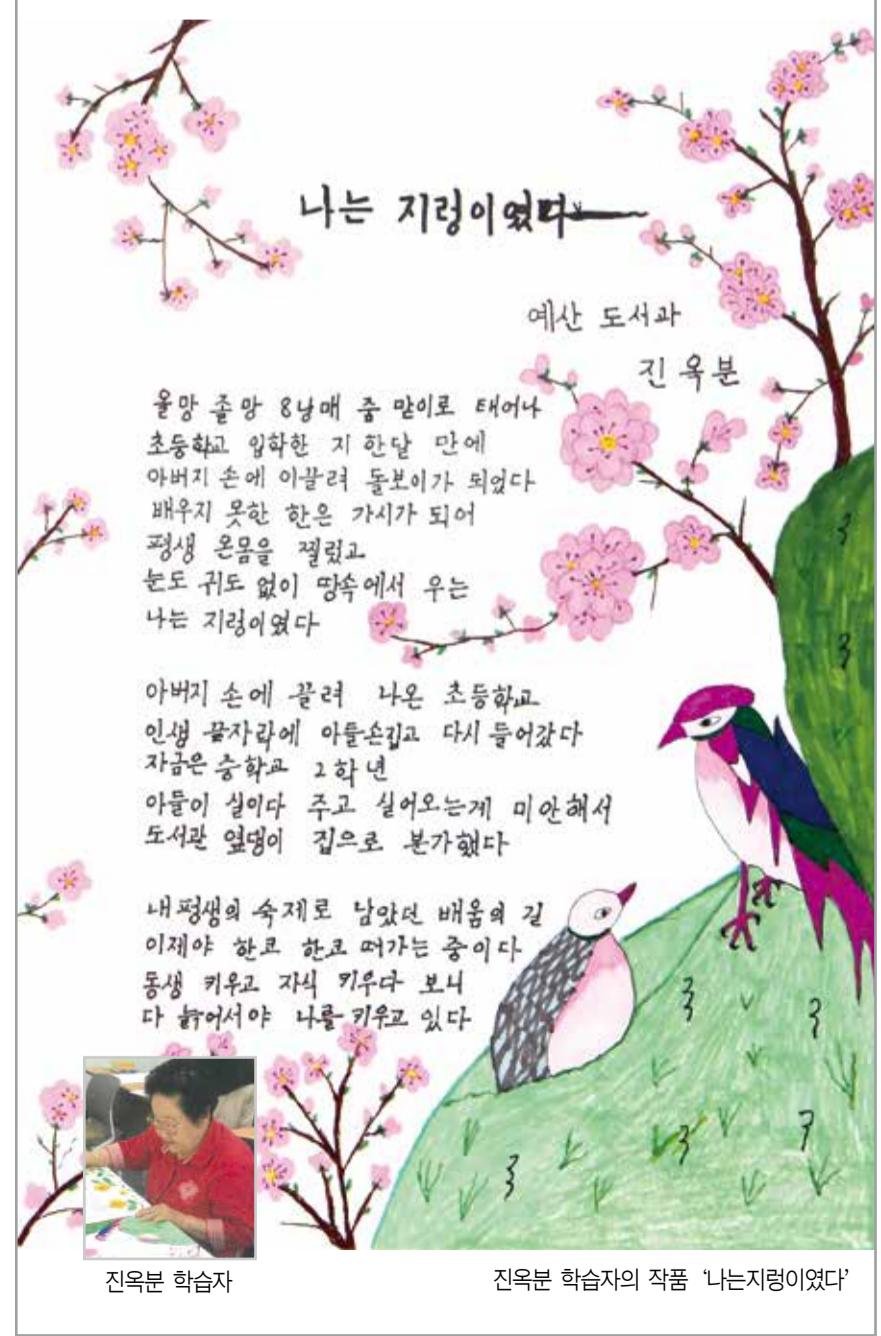
실버케어 자격증 취득과정에는 18명의 신중년층이 참여했으며, 8월 1일 교육생 전원이 수료의 기쁨을 안았다.

수료생들은 이후 각자의 역량을 높이며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에서 무료봉사도 펼치기로 하는 등 강사로의 취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취업 알선과 일자리 제공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주간태안신문 김동이 기자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호모루덴스와 지역 축제

내포칼럼



최혜진
목원대 교수

자도 지지자불여호지자(知之者不如好之者) 호지자불여나지자(好之者不如樂之者)라 하여 ‘도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 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던가. 도(道) 조차도 즐거움 속에 노닐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과 경쟁 속에 매일이 고단한 현대인들에게 ‘놀이’란 무엇일까.

일터를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지만, 일은 노동일 뿐인 많은 사람에게 휴식과 놀이는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덕목이 된다.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길에서 고생하고 무더위 속에 지칠지도,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이다. 추석 연휴가 되면 비행기 표가 동나고, 숙박 예약이 힘들어지며, 유명 관광지에는 여지없이 교통체증이 일어난다. 들로 산으로 온갖 짐을 싣고 캠핑을 떠나고 하다못해 등산이나 운동, 다른 동네 카페로 원정을 떠나더라도 해야 웬지 휴가를 잘 보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 역시 놀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호모루덴스의 본능을 자극하고 해소하는 데 축제만한 것이 없다. 시끌벅적 모여 광장의 해방감을 느끼고, 낯선 것들을 경험하며, 먹고 마시며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면서

지적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색다른 지역과 공간 속으로 떠나 낯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예술적 행위를 통해 창조와 상상의 세계로 떠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각 지역의 역사와 풍토에 맞는 다양한 축제들이 기획되고 사시사철 열리고 있어, 국내의 축제만 해도 가볼 만한 곳이 많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축제만 해도 64개에 달한다.

그러나 축제에 먹거리만 중요한 건 아니다. 많은 축제 속에는 다양한 공

권과 지역 상인은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산품과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충남에서도 흥성이나 예산 등에서 유명인의 컨설팅과 협력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얻었는데,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축제에 먹거리만 중요한 건 아니다. 많은 축제 속에는 다양한 공

연 예술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축제는 그 지역 민과 지역 예술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결국 온전한 축제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문화유산도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먹고 마시며 노는 중에 줄다리기도 해보고, 민요도 배워보고, 함께 나무도 깎아보면서 도장 하나 만들어 가면 어떨까. 내포 지역은 시조도 있고, 중고제 가무악도 있는데 우리 지역 전통예술을 경험하고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 해서 연극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자. 지역의 어르신들이 함께 학창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 유명하고 비싼 연예인보다 더 감동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지역의 축제는 지역민이 주체로 주인공이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즐기고 놀면서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호모루덴스로서의 축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놀이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역사가 문화이자 예술

축제장 연예인 초대 공연은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 안돼
지역 축제는 지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주체이자 주인공

”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가는 인간의 본성 중 ‘놀이’를 추구하는 성향을 인간의 본질로 파악했고, 이를 ‘호모루덴스’라 명명했다. 호이징가는 우리 삶 자체를 놀이의 장으로 보면서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놀다 보니, 혹은 놀이의 정신으로 살다 보니 정치, 종교, 문화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곧, 놀이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역사가 곧 문화요 예술이요, 삶이 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공

축제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한 세 가지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이다. 이 외에 서비스나 안전성, 주차, 위생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바가지요금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먹거리 혹은 맛집은 요즘 가장 중요한 트랜드라 할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적당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면 축제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생기는 축제는 지역 상

연 예술이 함께 하기 마련이다. 음악이나 춤, 퍼포먼스 속에서 축제는 더욱 빛이 난다. 어느 지역 축제든 대개 유명한 가수, 연주자, 댄서 등을 초청하여 화려하고도 즐거운 볼거리를 준비한다. 때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명인을 초청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기 위해 축제를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역 축제

씨앗: 종자(種子)에 관하여

농부일기

우리 조상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농사지은 종자는 베개 삼아 베고 잡을 자리’는 말을 했다고 한다. 종자의 중요성을 지적한 의미 있는 말이다. 생물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을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씨앗 참 좋은 우리말이다.

지금 세계는 씨앗 전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 4계절이 뚜렷하여 많은 종류의 종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인이 채취해 가서 자기네 종자로 만든 경우도 많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멸종시킨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에 씨에 대한 로열티를 많이 내고 있어 그만큼 농가소득이 줄고, 따라서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씨앗! 이것은 모든 생물의 근본이다. 아무리 예전이 좋다고 해도 씨가 없으면 번식하거나 자랄 수 없고 그야말로 죽정이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알 것이다.

종자 즉 씨앗을 육종하려는 노력의 선구자였던 우장춘 박사도 씨앗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의 씨앗이 우주와 같다’라고 했을까. 정확히 말하면 씨앗은 모든 것의 근본이요, 시작이고, 출발점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발’을 시도 때도 없이 외쳐대는지도 모른다. 강하게 발음하면 나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좋게 생각하면 시작 즉 출발이라는 이야기가 되니 좋은 말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된 택시의 이름도 시발택시라고 하였고 그 시발이 지금의 세계적 자동차가 된 것이다.

동화나 노래에도 씨앗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옛날 그림에는 무병장수와 집안의 번영을 위한 다산을 씨앗으로 표현하고, 다복을 기원하는 그림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감, 밤, 복숭아, 포도 등 과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으니 일 년간의 농사를 결산하면서 어느 농사에 어느 씨앗이 좋았고 또 다른 농업은 무슨 종류가 경영하기 편하고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여 다음 농사에 쓰일 품종의 씨앗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씨앗은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영양분식의 씨나 접목의 씨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일년생이 아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나무든지, 동물이든지, 벼섯 같은 균이든지 물고기든지 간에 모든 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니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씨앗 이것이 좋게만 잘 사용되어 우리 인류가 한층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씨앗의 ‘시발’이 정말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삼화·맹주석

김태권

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장

생물시계 대청부채

식물이야기

대청부채

희귀식물인 대청부채는 백합목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부채붓꽃 또는 얼이범부채라고도 하며 북한에서는 참부채붓꽃이라 부른다.

범부채 몸에 붓꽃이 핀 모양으로 연보라색 꽃이 여름에 핀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한국, 중국, 만주 등지에서 분포한다.

식물분류학자 이창복 박사에 의해 1983년 대청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일부 바닷가에서만 서식한다. 꽃이 아름다워 원예 가치가 높으며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 2급 식물로 보호받고 있다. 대청부채라는 이름도 대청도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일부 부챗살처럼 넓게 퍼진다 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여름에 연한 보라색 꽃이 3~5송이 씩 달리며 하루 중 오후 3시를 전후해서 꽃을 피우고 오후 4시경에 만개 하며 점차 지기 시작해 22시경 꽃을 완전히 말아버린다.

대청부채는 오후 3시 전후로 꽃이 피는 일명 생물시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꿀벌이 꽃을 나를 때 교잡종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개화시간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즉 꿀벌이 범부채의 꽃가루를 묻히고 대청부채에 방문하면 교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촌 같은 범부채와 교잡종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순수 종 보존을 위해 대청부채의 생체시계로 교묘하게 회피하는 지혜



고운식물원의 대청부채

▶꽃말 - 좋은소식

▶생태 - 여러해살이풀

▶개화시기 - 8~9월

▶분류 - 붓꽃과

▶원산지 - 중국

가 작동하면서 범부채가 오전에 꽃이 핀다면 대청부채는 오후에 꽃이 핀다는 것이다.

따라서 꿀벌들의 범부채 방문은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되고 교잡 가능성이 있는 오후에는 꽃가루가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고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존을 둘러싼 생물들의 지혜, 종을 보존하고 종의 고유함을 지켜내려는 대청부채의 특징이다.

대청부채의 꽃말은 ‘좋은 소식’이며, 햇빛이 잘 들고 통풍과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양에서 잘 자란다.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바로 파종하거나 겨울 동안 저온으로 보관 후 봄에 물에 불린 후 파종하며 종자 파종 시 통기성이 좋은 질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질석 대신 냅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면 가을에 포기나누기 방식도 가능하다.

/강상규 청양 고운식물원 기획실장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추진

충남도의회는 8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고위공직자는 물론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등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공직자 등의 부패 예방 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정·교육행정질문

“덕산온천관광호텔 타당성 검토 필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형서 의원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하여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짐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공사와 협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해야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은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은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m²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동남아파트는 문화유산 보호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해야려 달라"고 피력했다.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AIDT 준비 철저”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사업 초기 활발했던 한옥 건축 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 및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또한 생활 인구 확대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AIDT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밝혔으며, 그 취지와 도입 배경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입 초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형 IB학교·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은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유성재 의원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 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16.4%)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은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예방 마련과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2021년부터 매년 평균 5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 5437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존재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도 59%에 해당하는 521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방안과 충전시설의 지상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발견 및 초동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까지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청홍성역' 명칭 개정 피력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 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시급”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은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국 축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2021년부터 주요 가축(돼지·닭 등)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사업비는 평균 44억 원이며 백신 투여 가축은 약 2억 7000두이다.

이 의원은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해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농업고 현황만 봐도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 또한 8개 농업고 중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 4-H 활동 운영 현황도 요청해 봤으나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도정·교육행정질문

“청양 지천댐 대체 방안 고려” 제안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은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 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 공원 자체”라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몰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안착 노력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약 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만 4733 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 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 8)이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질의하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 여파로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료원의 위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흥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은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여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5분발언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지연 우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 10)은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 원 중 1060억 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총 7회)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세우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강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 1)은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 6000원이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의료소외계층 대상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가 있다”며 “충남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6%에 불과해 읍면지역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의 의료시설 접근 가능성 인구비율을 언급하며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0분 이내 접근 가능인구 비율이 76.73%, 30분 이내는 49.0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며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교통편도 불리하고 노인인구 비율도 높아 의료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기준 시행 중인 제도의 장점은 적극 활용하되 문제가 되는 점은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해야”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 2)은 “충남 청년 수산인 단체 결성을 통한 충남도 수산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부담에도 충남 어업 생산량은 다행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귀어인 대상의 어선·양식장 임대 사업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산업 선순환을 가능하도록 도와 시·군에서도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며, 나아가 사업당사자들의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충남에서도 청년 수산인 만의 조직을 결성해 수산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청년 수산인들이 충남 수산업의 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 촉구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중고제 판소리 무형유산 등재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 2)은 ‘중고제 판소리’의 보존 및 전승가치 확대와 무형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충청·경기 남부에서 전승되는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보존이 미약하다”면서 “중고제 판소리가 전라도의 동편제·서편제 판소리보다 먼저 발생했음에도 판소리의 시초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로 부터 인정받아 전승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전라도에서는 판소리 자체를 자신들만의 중요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각종 축제와 관광에 활용하고 있지만,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충남도의 관심과 노력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중고제 판소리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고제 판소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록광장을 서산 랜드마크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 2)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종양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주산되나, 서산시 소유부지 땅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 당부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 3)은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유통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히”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 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이다.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 촉구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8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정광섭 의원(태안 2)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2024 충남농사랑 선물세트 *

충남농사랑 추석 선물 특별전

충남농사랑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추석 선물세트



하늘안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천안배 선물용배

15% 할인가 35,700원

6kg(9~10과)



금정알밤농원
정안알밤 특

15% 할인가 38,420원

4kg



대광수산맛김
대천 재래김

15% 할인가 15,215원

10봉



농업회사법인(주)인주라이스
아산을 담다 6종세트

15% 할인가 30,345원

280gx6=1.68kg



서산동부전통시장갯마을협동조합
갯마을 도시락 감태

15% 할인가 28,135원

4g/20봉



강경장수젓갈
젓갈 3종선물세트 1호

15% 할인가 33,915원

젓갈쌈장+꼴뚜기젓+오징어젓(각 500g)



해나루한과
우리밀호박고구마약과

15% 할인가 12,495원

1kg



천고삼H&B
골드 수 홍삼농축액 선물세트

15% 할인가 18,615원

480g



부여은산차한표고농원
표고버섯 선물세트 1호

15% 할인가 44,625원

생표고버섯+표고버섯슬라이스+버섯가루



오곡양조장
한산소곡주 750 세트

15% 할인가 23,375원

750mlx2병



웰빙햇살농장
구기자선물세트

15% 할인가 48,365원

건구기자300g+분말220g+박스&쇼핑백



지애(구_자연채움)
참 조은 우(牛) 지애 1호

15% 할인가 83,045원

국거리+불고기+산적(각400g/1등급)



농업법인주식회사예당호농원
홍로

15% 할인가 57,120원

5kg(19~20과)



태현보호작업장
레드솔트 선물세트 3호

15% 할인가 25,925원

천일염+흑마늘+꽃게(각 450g)

상품 구매는 충남농사랑 웹사이트 2024 추석기획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충남농사랑 고객센터

070-5217-9477

검색창에 "충남농사랑"을 입력하세요. 

충남농사랑
바로가기 QR코드



2024 추석 카탈로그
바로가기 QR코드